關內自軍

가고 그리하다 한다

時

毛蚁 物帳

日宝行學

請格

있하으치 삼면로인

推乌烟 蘇實達

犯罪激增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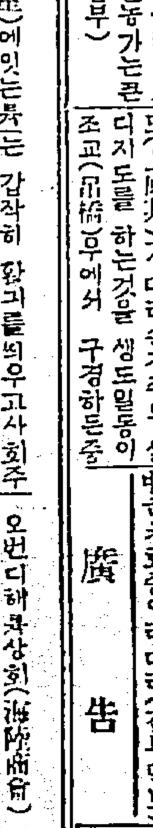
쇠람략

대관된 위으에 는로

셋 군 로 쫉 대 리

약세분용과시 정는 장년한





ClibPDF - www.fastio.com

그는해

11.界才始作习习一千六百五 | 福八十尺 船高五十尺习三县 || 十六年初되는十一月十七日에 | 배를만들어 板子와板子사이 오기始作並大雨가 四十日四 | 귀 夜등만을 퍼부어쇠 에도 물질이요 힘에도

이요 北에도 물밧게는 모것도 업셋으니 하느님의 似怒가얼마나컷든것을 작각 하면몸이 옷식한다 中國西日母州州大雨方數干 吴 写 9 控 呈 一 天 地 開 農 以 來 의

◇히느님이 침 흙으로만 가 먹지말나는智慧의果판을 배암의코임에 따먹은것이本 來부터計上出의遊廳의原因의 되야 長生不死할것이 에底定되게되었스니 九百餘 | 멋스나 이덟다란 世界에는 年**밧기 살지못한『아**답』율비 롯히야 모든人知를위하야설 어하지만을수가엄다

智慧는법하다고한다 만은 그것이人所를위하아는 도로 **時期思의原因の되免**ムリ 를 멋지하랴 이왕 맛은 物件이 라 바릴수드업는[].]: 달아 날수잇는대로 달아나는수밧 게。別道理가업술것이다

◇하느님은 自己가 만든 『아당』決婦의하는즛을 보면 볼시록 怒하지만율수가엄섯 川이엄시그子孫들은 脈窓에 뜨위 서로차'호고 서로죽이 니作恩忠他도이에서더하라 큰비줄내리워 다죽여바리 겠다는생각물하였스나『아담 의儿代孫『エ아』一家만은 普

비를내리우기七日前에『노아』 하리고하였다 ◇「上中』는 船長五百尺船 量ストーナルシュ

亞의西部『알머니아』에 『아라 **引き』山図中の海拔一萬八千** 除尺의나되는天의タム니如子 아니되는 물깁피엿슴을 집 작하겠다 비가버린뒤百五十 日이되여도 如前司 물연이 고 아모것도보이지아니하야 다시七日율지내 비둘기를노 적은새좃차 안즐곳이업서그 **더보낸즉 이곳커곳를 다니** 적은나무조각을물고 돌아오 는것을 보고야 비로소隆地 가 나타낫것을알앗다 ◇ 차차 물은 줄고 陸地가

나타나서 『上아』一家七無事 司救援되었스니 이것은人類 의第二始組の다

司背毛되지못하는格으로。子 孫은亦是惡計中。私慾에눈の 불거돌아가니 하느님이第二 『노아』에게 『이後에는 洪水 를 내리우지 안이할러이다 ||

證据로는 이무지개이다』 아못힐일이리하아하느님은큰 고 約米하였다니 安心이된 의꿈에나리나 시장차 큰비가 하느님을 생각지도아니하니 [ 올터이니 이러이러한此條를 이까에는아모리終變한하느님. 이기로니종터 큰沙水圏내리

에는 송진을 발나물이들어 오지안토룩한뒤에는 먹을것 입을것을비롯하야 새와즘생

식을 실어失고 기달였다한 빙울두방울식 비가내리드니 11 가가 바다이되야 배는떠

孔内岩石作火型 "树北市民人

發援催金工厂所用

松十計本紀計列四原同 三臺沙豆! 門生吃食念吃出月都由 | 時間 | 年別